

ARKO 도시공원 예술로 공공미술사업 : 경남 함양 상림공원
<라운드 프로젝트 ROUND PROJECT> 개막식



www.round-hamyang.org

개막식 일정

2013년 10월 7일 월요일 오후 1시 - 4시 30분

개막식 장소

경상남도 함양군 상림공원 내 고운 광장

공동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상남도 함양군

주관

갤러리팩토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0길 15)

기획

홍보라 (갤러리 팩토리 디렉터)

라운드 프로젝트 소개

<라운드 프로젝트>는 경상남도 함양에 위치한 상림공원 내 나란히 구획된 상림 숲과 연꽃공원(연지공원), 그리고 최근 조성된 고운광장을 음악과 영상 및 조각 작품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관람자의 움직임과 공감각적 경험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공공 미술 프로젝트이다.

본 프로젝트에는 덴마크의 아티스트 듀오 란디와 카트린, 정소영, 장민승+정재일 작가가 참여하여 외부 조형물에서 영화, 음악, 또 프로젝트를 위한 아카이브형 웹사이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이 기획/제작된다.

개막식 소개

2012년 10월 이후 약 1년간 걸쳐 기획/진행되고 있는 <라운드 프로젝트>의 개막식이 2013년 10월 7일 월요일 함양 상림공원 내 고운광장에서 진행됩니다.

본 개막식에서는 <라운드 프로젝트>의 참여작가인 장민승+정재일 작가의 '스피어스 상림-소리산책' (2013년 11월 말 완성 예정)을 단편영화 형식으로 감상하고, 정소영 작가의 외부조형물 시리즈인 '빛의 정원'을 작가의 소개와 함께 감상하게 됩니다. 또, 덴마크 아티스트 듀오인 란디 & 카트린의 '타워맨'을 기획자의 소개와 함께 감상하고, 더불어 현재 작업 중인 장민승+정재일의 '스피어스상림'의 음악과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직접 보고 들으며 아름다운 상림숲을 산책하는 일정으로 마무리됩니다.

함양군의 군민들뿐 아니라, 서울을 중심으로 여타지역에서 개막식을 방문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함양군 내의 공정무역카페 '빈둥'에서 준비한 다과와 차, 또 함양군 지리산 창원생태마을의 정노숙 자연식 요리연구가께서 마련해주신 건강한 음식도 준비됩니다. 또, 방문하신 분들 중 라운드 프로젝트에 소견을 남겨주시는 분 20여명을 추천하여 라운드프로젝트 로고가 새겨진 가방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행사 일정

라운드 버스 투어 예약하기

- 출발 시간 : 2013년 10월 7일 [월] 오전9시
- 출발 장소 : 5호선 광화문역 8번출구 앞 (함양 라운드프로젝트 : 라운드투어 배너 확인 요망)
- 투어 요금 : 10,000원 *개막식 관람 및 라운드 프로젝트 투어, 중식 포함

- 신청 인원 : 30명 (선착순 마감)

* 유의사항 : 출발 7일전까지 예약 및 3일 전까지 신청자 이름으로 입금 완료
행사 3일전까지 사전 연락 없이 투어를 취소하시는 분들에게는 100%의 취소비가 부과되며,
당일 투어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투어비를 전액 돌려드립니다

- 예약 및 입금 문의 : galleryfactory@gmail.com (전화 : 02-733-4883)

라운드 투어 세부 일정

09:00 - 13:00 서울 출발 > 경상남도 함양군 상림공원 도착 (투어 버스 이동)
13:00 - 13:50 휴식 및 오프닝 리셉션 > 개막식 장소 이동
14:00 - 개막식 인사 및 기획의도, 작가 소개
14:30 - 스피어스 상림 - 소리 산책 상영 (약 15-20분의 단편영화)
15:00 - 16:30 <라운드 프로젝트> 투어 : 빛의 정원 > 타워맨 > 스피어스 상림 - 소리 산책을
상림숲에서 경험 (스마트폰으로 스피어스 상림의 비디오와 음악을 감상하며 숲을 산책하는 시간)
16: 40 - 17:40 상림숲 출발 - 함양 일두 고택 방문
18:00 - 21:30 함양 일두 고택 > 서울 (투어 버스 이동)

*세부 일정은 현지 사정 및 교통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운드 프로젝트 문의 :

갤러리팩토리 / 02 733 4883 / galleryfactory@gmail.com / www.factory483.org

라운드 프로젝트 ROUND PROJECT : www.round-hamyang.org

라운드 프로젝트 ROUND PROJECT 블로그 : <http://round-hamyang.org/wp/?cat=2>

도시공원 예술로 :

<http://webzine.arko.or.kr/?MID=boardInfo&IDX=2&IDX2=517&searchType=0&searchVal=&searchContent=&orderType=0&orderKind=0&page=1&listStyle=0>

기획자의 글

- 글, 홍보라

확실히 다원 예술에 대한 문화 예술계의 전체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요즘이다. 다원 예술이라함은 예술의 분류 체계의 하위 단위라기보다는 하나의 총체적인 예술행위(artistic practice)를 통해 작가 혹은 기획자가 취하게 되는 일종의 태도이자 접근 방식일진데, 어쩌다 보니 다원 예술이라는 것이 별도의 예술분야처럼 취급되고 때로는 과장되거나 포장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

함양이라는 도시에서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한다는 것에 앞서서 언제나 그랬듯이 특정한 작가나 작업의 형태, 혹은 예술의 장르를 고려하기에 앞서 장소의 물리적 특성과 문화적 문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 특수한 공간을 또 도시공원 예술로라는 이 공공예술 파일럿 프로젝트를 바라볼 것인가 하는 기획자로서의 태도나 입장을 만드는 것이 먼저였다.

함양이라는 지역을 지속해서 방문하고, 상림 숲을 낮과 밤에 거닐어 보기도 하고, 또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가장 의지하게 될 중요한 파트너인 함양의 문화관광과 공무원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상림 숲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계획을 포함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상림 공원에 대한 입체적인 경험과 이해를 하게 되었다. 결국, 이 직간접적인 숲의 체험과 이해를 통해 다양한 층위의 공감각, 시간적 요소가 포함되는 '총체적 경험(holistic experience)'을 끌어내는 것을 이번 라운드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가져가기로 하였다.

즉, 특정한 예술의 장르적 접근을 지양하고 (혹은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섞어 '다원'이라는 이름의 하부 장르로 편입하지 않고) 특정한 행위를 지시하고 강요하기보다는 숲이라는 환경 자체가 지닌 바람, 소리, 냄새, 빛 등의 여러 요소를 직접 듣고, 보고 거니는 직접적인 경험의 층위와 함께 상림 숲을 직접 방문하여 물리적인 체험을 하지 않더라도 라운드 프로젝트를 위해 만들어질 새로운 웹사이트를 통해 문학적, 시각적, 청각적 체험을 하는 간접적 경험의 층위를 입체적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특히, 후자의 경험은 물리적 시간과 공간적 이동이라는 한계를 쉽게 극복하면서도, 숲의 물리적인 체험보다는 미리 체험하는 미래의 경험, 미래에 대한 기억이라는 아이러니 하지만 아름다운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획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웹 기반으로 혹은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앱, app)을 통해 경험하게 될 숲에 대한 간접적 경험과 실제 방문을 통해 체험될 물리적 경험이 중첩되거나 미끄러지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기억의 층위를 만들어보길 의도한 것이다. 또, 웹이나 앱을 통한 새로운 경험의 층위가 함양이라는 지역, 또 이번 라운드 프로젝트의 사이트가 될 상림 공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go viral!) 역할을 해주길 은근히 기대해 보기도 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vs.(versus, 버수스) 정신이다. 버수스라는 것이 하나 이상의 현상이 서로 대조, 대비되거나 비교를 통해 서로의 차이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혹은 비교를 통해 같음과 다름이 실제로는 중첩되기도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자연의 아름다움은 추함을 품고 있고, 지속적인 것은 한시적인 것을 품고 있는 것이라고 상정하고 상대적이고 비교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와 입장을 드러내고자 의도하였다. 즉, 하나의 강력한 모뉴먼트를 만들거나 선언적인 태도를 가져가기보다는 기획의 일정 부분은 과정을 통해 열어두고 새로운 가능성이 계속 스쳐 지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상림 공원의 중심에는 숲이 있다. 이것은 그 어떤 멋진 예술적 기획이나 시설이 대체할 수 없는 아주 분명한 사실이자 전제이다. 그래서 이번 라운드 프로젝트에 함께 협업하게 될 다양한 주체들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획자, 작가들 등등) 모두 각각 다른 목적과 입장을 가졌다 하더라도 '숲'이 또 '예술'이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다는 것에 대해 공동의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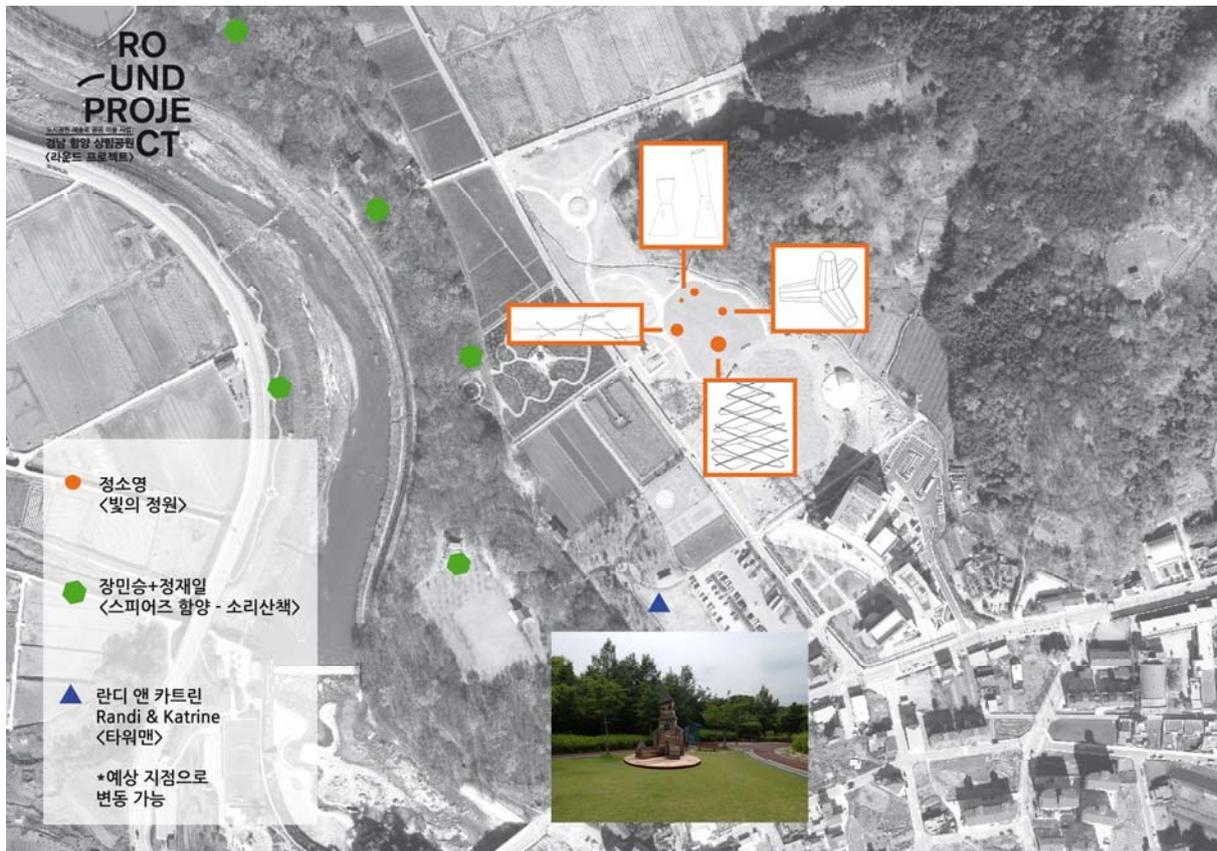
숲을 중심으로 두면서도 지역(커뮤니티)을 대상화하는 단편적인 참여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지역시민의 적극적 참여(extreme citizen involvement)를 시도하는 작업으로서 장민승+정재일 작가 듀오가 계획하는 '소리산책(스피어스) 프로젝트'(음악과 영상)가 있다. 함양의 유소년, 청소년 그리고 성인 오케스트라와의 협업으로 진행될 본 작업은 상림 숲의 사계를 주제로 한 오리지널 스코어의 음악을 창작하고 그것을 지역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직접 연주하고 숲의 여러 장소에서 연주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기록하게 된다. 그 영상과 음악은 각각 웹을 통해 공유될 것이고, 또 GPS 기반의 앱을 통해 숲을 걸으며 특정 장소에서 연주된 곡들이 자동으로 재생되는 또 다른 층위의 공감각적 체험을 제공하게 된다. 비록 사용과 편리에 방점이 찍힌 시설이나 눈을 즐겁게 하는 조형물 작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음악'이라는 공통어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지역의 자산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 작업 과정에 참여하는 함양의 오케스트라 단원들, 더 나아가 함양의 모든 시민에게 이 음악이라는 무형의 자산이 오래도록 남아 고향에 남아 있는 이들에겐 그들을 이어주는 공동의 경험으로, 또 고향을 떠나 살아가게 될 이들에게는 고향과 자신을 잇는 기억의 끈이 되어주길 바란다.

상림 숲의 입구에 비교적 최근 문을 연 복합문화시설과 그 뒤편으로 최근 개발된 근린공원은 새로 만들어진 편리한 시설에도 상림 숲과 비교해 시민의 사용이 낮은 편이다. 비록 상림 숲의 겹겹이 쌓인 시간의 레이어가 만들어낸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예술 작업을 통해 근접하기란 어렵겠지만 마치 상림 숲의 거울 이미지처럼 '빛'이라는 요소를 적극 끌어들이는 일련의 조형물로 구성된 또 다른 형태의 개념의 '숲'을 구현해보고자 기획하였다.

물론 외부 조형물이 가진 태생적 한계가 있겠지만, 함양 시민에게 상림 숲이 일상의 아름다운 한 조각이 된 것처럼 고운 광장에 놓일 정소영 작가의 일련의 (그 작동 방식이 숲의 빛을 최대한 끌어들이는 만화경과 잠망경의 원리를 빌린) 조형물들은 함양 시민에게 일상의 작은 반짝이는

순간이 되고자 한다. 만화경이 끌어들이듯, 잠망경 안으로 들여다볼 하늘의 한 조각과 함께 잠시 앉아 쉬어가기도 할 의자가 되기도 할 이 조형물들은 어린이들에게겐 일종의 놀이터가 되기도 할 것이다.

예술의 특성은 그 과정을 통해 유연하게 변해가며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이겠지만,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공공프로젝트는 행정상의 이유로 그 유연함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주요 작품이 다소 긴 준비 과정을 통해 기획/진행이 된다면, 좀 더 유연한 태도로 지역 커뮤니티와 한시적인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워크숍 프로그램을 국내외의 작가와 함께 계획하고 있다. 또, 숲이라는 특수한 환경 안에서 음악을 매개로 공간에 개입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비록 올해에 그 바람을 실행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한시적인 공간 개입을 통해 이 아름다운 숲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해보고 싶은 사심을 가득 담아서 말이다.



<라운드 프로젝트> 구성도



<라운드 프로젝트> 서울 전시 광경, 갤러리 팩토리

작가 소개

란디 & 카트린 Randi & Katr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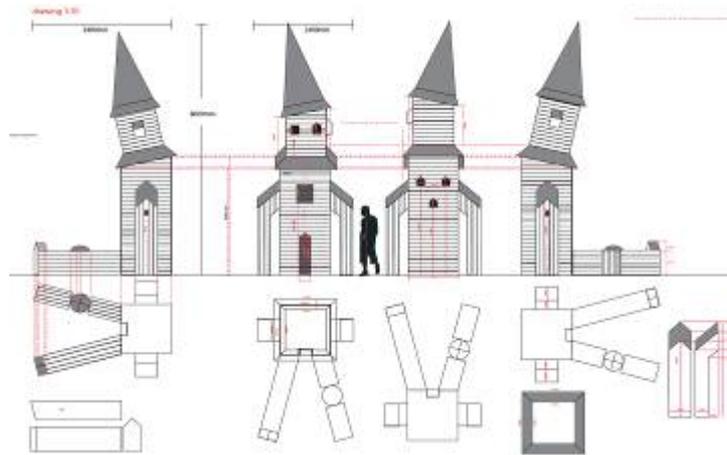
란디 & 카트린은 2003년부터 조각, 설치미술, 공공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작업해온 덴마크 듀오 작가이다. 평소 사람과 건축, 자연의 관계에 대해 다루면서도 재미와 유머를 더해 오브제나 건축물을 의인화한 공간 설치 작업을 해왔다. 북유럽을 중심으로 다수의 공공 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9년 갤러리 팩토리의 파사드를 사람의 얼굴로 형상화한 작업을 시작으로 한국과 인연을 맺어 다양한 전시 및 함양 라운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타워맨 Towerman

본래 2012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북유럽 디자인 특별전에 초청되어 국내에서 제작된 타워맨은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 빌딩 앞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후에 문화역 서울 284 삼등대합실의 '우연한 여행객'이 되어 '우연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합류하기도 했으며, 녹색 성장 체험관을 지나 2013년 8월에 함양에 정착하게 된다. 중세 유럽의 교회 건물을 의인화하여 만들어진 타워맨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복잡한 서울의 도심을 벗어나 상림숲으로 먼 여행을 떠난다.



Towerman, 2012
scale model / drawing



작가약력

Education

The Royal Danish Academy of Fine Arts, MFA 2005

Solo Exhibitions

2012 The Tourist Gaze, Flux Factory, NY

2011 Dream Harbour, Politikens hus, Denmark

2009 The House in your Head at Factory, Seoul South Korea

2008 The house in your head at GI Strand Gallery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Denmark

2007 SUPER SWEET - TWISTEE TREAT - 16 FLAVORS ITS A WORLD IN IT SELF Mogadishni AAR

2006 The Garden 1st left, Førstetilvenstre

2005 Fabricated Garden", Mogadishni

2004 Welcome Home, Exhibition Space Q

2004 HUS BÅD, project space of The Danish Academy of Fine Art

Group Exhibitions (selected)

2012 Nordic Day, Korea Foundation, Seoul, South Korea

2012 Kom og Leg, KØS, Museum of Art in Public Spaces

2012 Vores Kunst (our art), KØS, Museum of Art in Public Spaces

2011 PistProtta/Space Poetry 50 års jubilæum, Brandts

2011 Auktion, Kunsten

2010 Værker af ekstraordinært smukke kunstnere , TTC Gallery

2010 Party and Lost, Den Frie Centre of Contemporary Art, Denmark

2010 En hilsen til Ib Geertsen, Grafikernes Hus, Denmark

2010 Blandede Bolsher, Galleri Wolfsen, Denmark

2010 Grønningen, Docken, Denmark

2009 An inland Voyage, Kurs: The Harbour, køs museum of art in public places, Køge, Denmark

2009 Real/Fiction, Nick Clifford Contemporary, Daugård, Denmark

2009 Shawarma House, Sculpture by the sea, Aarhus, Denmark

2008 Over Bakke og Dal, Møstings Hus, Frederiksberg, Denmark

2008 Kunstnersammenslutningen JYLLAND, The Aarhus Art Building, Denmark

2008 Enter, Kunsthallen Brandts, Odense, Denmark

2008 Kunstauktion Aros, Aarhus art museum, Denmark

2008 Garten Eden, Städtische Galerie Bietigheim-Bissingen, Germany

2008 Kunst naturligvis Esbjerg Museum of Art, Denmark

PUBLIC ART COMMISSIONS

2012 Towerman, Commissioned by Korea Foundation (temporary)

2011 Vores Kunst , Ærøfærgerne

2011 Coffepot Pavillion, Rosenhaven old people's , Ballerup , Denmark

2011 Commissioned by ballerup city council

2010 Pine Forrest, Public Playground, Nikolaj Plads 5, Copenhagen k, Denmark

2010 Commissioned by Copenhagen City Council

2010 Water Lily, Euc Vest, Technical high school and vocational centre Esbjerg, Denmark

2010 Commissioned by The Danish Arts Foundation and Euc Vest.

장민승+정재일

장민승 Jang Minseung

미술 이외에 음악 활동과 가구 제작자(cabinet maker)로 활동하는 장민승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간과 사물이 지닌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관찰하는 시각을 습득했다. 2010년에 선보인 <水聲+景 / 2010 DIBANG>과 <A Multi-Culture / 2010 One and J. gallery>라는 전시를 통해 작가는 특정 공간을 기록하고 그 공간으로 감상자를 끌어들이기 시작한다. 최근 작업인 <스피어스 파트 1(Spheres Part I)>은 특정 공간을 시각적, 청각적 경험을 바탕으로 역사적 의미와 개인의 기억을 연계하는 장소 특정적 공공 미술 프로젝트였으며, 웹과 휴대폰 앱을 작업의 매개체로 끌어들여 관람자를 더욱 동적인 주체로 부각시킨다. 이 작업은 개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작업으로 다층적이고 밀도 있는 경험들을 통해 폭넓은 사고와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정재일 Jung Jaeil

정재일은 서양 음악과 한국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와 피아노를 포함하여 기타, 베이스 등 다수의 악기를 탁월하게 연주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100여 매의 음반, 30여 편의 영화 및 연극의 음악 작곡가, 프로듀서로 활동한다. 다수의 나라에서 여러 공연의 작곡가와 연주가로서 활동하며 가장 음악적 경계가 없는 젊은 음악인으로 인정받아 왔다. 2009년 재즈 드럼 연주자 김책과 함께 'the methodologies' 음반과 2010년 'jung jaeil'을 발표하며 한국 재즈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연주자로 평가받았다. 근래에는 장민승과 함께 음악뿐 아니라 예술의 새로운 영역과 감각적 경험을 탐구하고 있다.

스피어스 상림 - 소리 산책 Spheres Sanglim - Sound walk

장민승+정재일의 '스피어스(spheres)'는 특정 장소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성 작업으로 스마트폰과 프로젝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감상자가 각 지점에 놓인 음악을 재생하고 주변 환경 소리와 함께 감상함으로써 다층적인 소리를 체험하는 것이다. 두 작가는 2011년 문래 예술단지에서 행해진 스피어스에 이어 이번 2013년 함양에서 이루어지는 공공 미술 프로젝트인 '라운드 프로젝트'를 통해 두 번째 스피어스 시리즈를 선보인다. 함양 상림공원에서 받은 인상을 토대로 만든 음악과 영상은 숲을 배경으로 펼쳐짐으로써 그 공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개개인의 다양한 체험과 감정을 만든다. 이러한 경험에는 나무와 사람, 음악이라는 요소가 있다.

나무

숲을 이루는 나무들은 두 작가에게 많은 이야기를 준다. 장민승 작가는 시간에 따라 소실되고 변화하는 자연경관과 그 안의 이야기들에 대해선 오직 나무와 돌들만이 알고 있을 거라 상상하며 수령이 지긋한 나무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은 어떤 존재로 보일 것인지 혹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영혼은 어떻게 교감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 한편으론 이런 자연 신앙적 상상이 음악적 영감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앞서 상상한 것처럼 스스로 나무가 되어 그 시점으로 그린 상림 '숲'을 재현해 보기로 결심한다. 이 과정에서 장민승은 송고하고 원시적인 숲의 아름다움을 포착함과 동시에 일상적인 숲의 공간을 새롭게 해석하고 프레이밍화하며 정재일은 이 시점을 바탕으로 받은 영감으로 음악을 만든다.

사람(청각적 시점)

장소가 지닌 특수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작업의 영감이자 가장 큰 구조를 차지했던 기존 작업들과는 달리 이번 '스피어스2'에서는 함양이라는 지역성을 살린 장소 기반 음악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이렇게 시작된 프로젝트는 이 지역 어린이, 청소년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와 함께 음악을 만들고 각 단원이 개별적으로 선호하는 상림숲을 배경으로 기록된다. 사람이 음악의 주체가 되고 또한 대상이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지역 주민에게는 익숙했던 숲이 새로운 장소성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감상자들은 상림숲이라는 커다란 무대 안에 놓이게 된다.

음악

영상과 음악으로 구성될 이번 프로젝트는 웹사이트를 통해 외부에서 상시 감상할 수 있지만 상림숲에서만 재생되도록 고안된 애플리케이션 '스피어스 상림(Spheres Sanglim)'을 통해 현지에서만 경험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상림숲에서 촬영한 영상들과 이 지역 사람들과 구성하여 만든 음악은 다시 이 장소에서만 감상 가능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고, 그럼으로써 나무와 사람, 음악은 모두 서로 기대고 마주 보게 되는 것이다. 함양 상림숲을 배경으로 한 '스피어스2'는 함양 라운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부제는 소리 산책(Sound walk)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숲을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숲이 주는 소리를 들으며 더불어 이 숲을 배경으로 만든 소리와 함께 이 공간을 거닐어 보는 것, 이로써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공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마음속에 새로운 경관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score by jung jaeil





스피어즈 함양 – 소리산책 Spheres Hamyang – Sound walk

작가약력

장민승

Education

2004 BFA in Department of Sculpture, college of art, Chung-ang University , Seoul, Korea

2012 MFA in Department of Sculpture, college of art, Chung-ang University

Solo Exhibitions

2012 <the moments>, 원앤제이 갤러리, 서울

2011 <水聲+景수성십경>, 조현 갤러리 부산

2010 < A multi-culture>, 원앤제이 갤러리, 서울

2010 <水聲+景수성십경>, 아트라운지 디방, 서울

2008 <Intermission>, 서미앤투스, 서울

2006 <Can I drink champagne>, 서미앤투스, 서울

2006 <Cut & Bend>, 갤러리 모듈, 서울

Group Exhibitions (Selected)

2012 <Encounter, Experience, and Environment>, Gillman Barracks, 싱가포르

2012 <오래된 미래>, 문화역서울 284, 서울

2011 <도시탐색>,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0 <MEGA Stuff>, Salon de H, 서울

2010 <문지방>, 아트라운지 디방, 서울

2009 <Platform in Kimusa P1>, samuso, 서울 소격동 구 기무사령부, 서울

2009 <The 28th Biennial of Graphic Arts, After Gogo: A New Era of Korean Art>, Cankarjev dom Gallery, 류블라냐, 슬로베니아

2008 <Wonderful Life>, 두산 갤러리, 서울

2007 <서울 디자인 위크>, Fuori Salone, 밀라노, 이탈리아

2006 부산비엔날레 <Living furniture>, SK Pavilion, 부산

2006 <차도살인지계>, 카이스 갤러리, 서울

2005 <DESIGN MADE>,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Public Art Commissions

2011 <spheres part I>- MAP (Mullae Arts Plus), 문래예술공장, 서울

2006 1st Design Network ASIA 전시 커미셔너 자전거 디자인전시 <Cutting Edge> 큐레이터, Alvar siza 뮤지엄, 안양시

2005 10th 부산국제영화제 10주년 기념 전시, 이벤트 기획 연출, 부산

Awards

- 2010 Seoul Art and Culture Foundation < General grants for Visual Art>
- 2010 Seoul Museum of Art <SeMA Young Artist support program>
- 2010 Seoul Art and Culture Foundation <General grants for Mullae Arts Plus>
- 2006 Korea Design Award <Young product designer of the year>

정재일

Performances

- 2010 연극 `유랑극단 쇼팔로비치` 음악감독
- 2009 현대미술 페스티벌 `Platform in KIMUSA` 설치작품 <A intermission>
- 2009 뮤지컬 `굿모닝 학교` 음악감독
- 2008 고궁뮤지컬 `대장금` 편곡
- 2007 샤미센 연주자 Agatsuma Hiromitsu 의 일본 20 여개 도시 전국투어 참가 및 live dvd 발매
- 2006 CJ Media 와 문화연대 합작의 민중가요 리메이크 음반 `아가미` 음악감독
- 2006 기아자동차 `LOTZE` commercial 음악감독
- 2005 김민기의 1978 년 작 `공장의 불빛` 리메이크 음반 음악감독

Albums

- 2012 음반 `Incendies` 발매
- 2009 음반 `정재일 & 김책 - the methodologies` 발매
- 2003 독집음반 `눈물꽃` 발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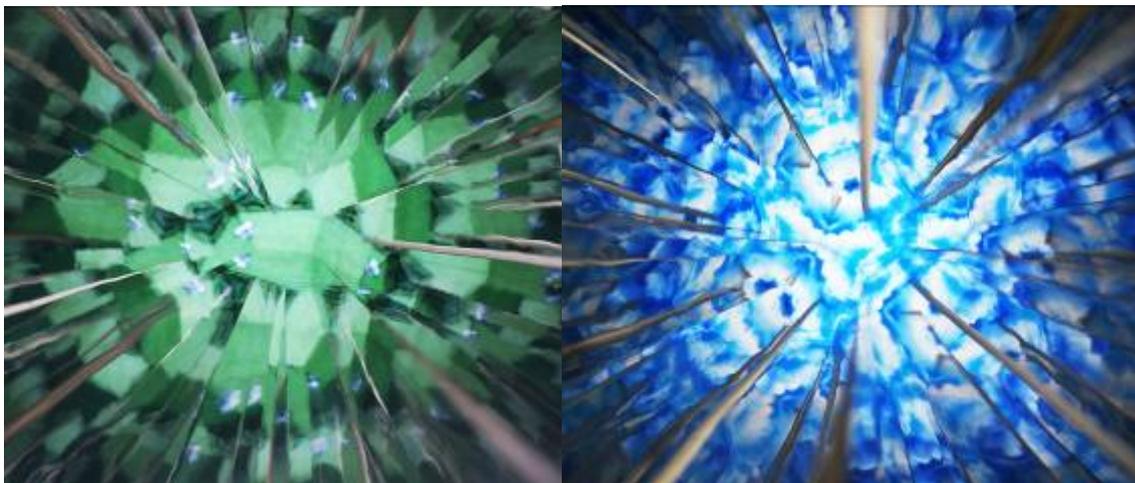
Awards

- 2013 뮤지컬 Jesus Christ Superstar, 샤롯데 씨어터, 서울
- 2013 제 7 회 뮤지컬어워즈, 음악감독상
- 2012 연극 - 그을린 사랑 *Incendies*(by Wajdi Mouawad), 명동예술극장
- 2012 Encounter, Experience, and Enviroment, Gillman Barracks, 싱가포르
- 2012 <the moments>, 원앤제이 갤러리, 서울
- 2010 년 음반 `정재일 & 김책 - the methodologies` 제 7 회 한국대중음악상 재즈&크로스오버 부문 최우수 연주상
- 2007 년 음반발매. 대한민국 국회 대중문화 & 미디어 대상 - 국악부문 대상.
- 2003 년 독집음반 `눈물꽃` 제 1 회 한국대중음악상 신인상 수상 [2003]

정소영 Soyoung Chung

시각예술가인 정소영의 조형 설치 작업은 도시와 자연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에 대한 호기심과 관찰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일상에 미묘하면서도 극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자연적 힘에 의한 현상 - 변이, 마찰, 결정화, 중력, 해체 - 에 대한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접근이다.

2007년 금호미술관에서 <A different kind of Tension>, 2008년 사루비아다방에서 <Zero Construction>, 2011년 OCI미술관에서 <On the ground floor of the Geology Building>, 2013년 대림미술관 프로젝트 스페이스 구슬모아당구장에서 <움직이지 않고 여행하기> 개인전과 다수의 그룹전을 가졌다. 또한 건축과 지질학에 대한 관심을 협업, 공공 미술, 출판, 전시 기획으로 확장시키는 프로젝트들도 진행하고 있다.



<빛의 정원> 만화경 나무로 본 예시

빛의 정원 Light Garden

정소영은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떻게 하면 오래된 상림공원의 건너편에 새로 조성된 인공적 느낌이 강한 고운광장 일대에 작가 자신의 작업을 개입시켜 숲의 아름다움을 확장시키면서 새로운 예술적 형태로 재탄생시킬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리하여 이 공원 일대에 새로운 성격과 개념을 첨가하기보다 이미 숲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연의 형태와 그 유희적 성격을 극대화하고자 결정하였다. 자연을 사색과 관조의 대상이 아닌, 관찰과 놀이를 통하여 발견하는 대상으로 설정하여 관람객의 개입이 가능한 '빛의 정원'을 만들고자 하였다.

하늘 만화경

어렸을 적 가지고 놀던 망원경을 연상시키는 원통형 구조에 뚫려있는 구멍 속을 통해 하늘을 바라본다.

별 벤치

별과 방파제의 형태로 관람객들이 타고 놀거나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의 역할을 한다.

빛방울

숲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솔방울을 그래픽화한 구조로 반짝이는 표면으로 빛이 반사되고 거울처럼 자신을 비춰본다.

방울나무

나뭇가지가 열기설기 엮여 있듯이 보이는 이 조형물은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듯이 스스로 움직이고 돌아감으로써 자연의 일부가 된다. 이렇게 자연의 요소를 끌어들인 '빛의 정원'은 우리가 잊고 지냈던 자연과의 놀이를 환기시키고 재발견함으로써 관람객들이 자연과 적극 교감할 수 있는 제3의 공원이 된다.

작가약력

Education

2003 파리 국립고등예술원 졸업 (DNSAP-Diplome Supérieur National d'Art Plastique)

Solo Exhibitions

2013 움직이지 않고 여행하기, 대림미술관 프로젝트 스페이스, 구슬모아 당구장, 서울

2011 On the ground floor of Geology building, OCI 미술관, 서울

2008 Zero Construction, 사루비아 다방, 서울

2007 A different kind of tension, 금호미술관, 서울

2006 Innerscape, Gallery Misschina Beauty, 파리

Group Exhibitions (selected)

2012 갈라파고스, 일민미술관, 서울

2012 10 Young Creators, 대림미술관 프로젝트 스페이스 구슬모아 당구장, 서울

2012 난지아트쇼 III - Seoul Anatomy,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난지갤러리, 서울

2012 Sporadic Positioning, 아라리오 갤러리, 천안

2011 No.45 Kumho Young Artist, 금호미술관

2011 City net Asia, 서울 시립미술관

2011 Space Study, 플라토

2011 Relay,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

2010 Last Summer, 갤러리 정미소

2010 Dual Phase, 김명범, 정소영 이인전, Gallery Skape
2010 Out of Line, 공간 해밀톤
2010 우리가 버려진 창고에서 발견한것들, 정소영, Sandro Setola 이인전, 갤러리 팩토리
2010 Unrealized Projects_미완성의 건축, 공간 해밀톤(2 월), 갤러리 27(5 월)
2009 Turning Up # 2, I M ART Gallery
2009 움직이는 미술관, 금호미술관

Public Art Commissions UBLIC (selected)

2012 스와로브스키, 그 빛나는 환상-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 대림미술관, 서울
2012 24 개의 각재와 여행가방, LIG 아트홀, 부산
2012 아웃스커트-출판 프로젝트, 갤러리 팩토리, 서울
2011 빛나무,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 조형물 제작 설치
2010 Map for Unrealized City 건축+아트 출판 프로젝트 기획 및 참여, Take Out drawing
2010 Unrealized Projects_미완성의 건축 전시기획, 계원디자인예술대학, 서울문화재단 후원
2008-2009 Nothing Too Much, 프로젝트 팀 전시 기획 및 공동 작업 / 경기문화재단 후원

Artist Residencies

2012 난지미술창작 스튜디오, 서울
2011 클레이아크 레지던스, 김해
2007 쌈지스페이스 단기 작가
2006 National Sculpture Factory, Cork, 아일랜드
2005 워크샵 & 전시, 카지노 룩셈부르크 현대미술관, 룩셈부르크
2005 파리 씨테 데 자르 1 년 입주 작가